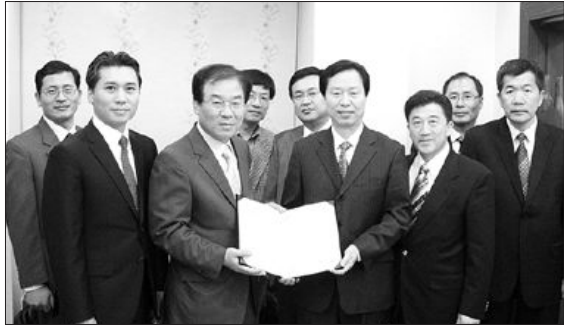


광주시치과의사회·市 무료 진료 협약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배웅· 왼쪽에서 세번째)와 광주시(시장 박광태)는 최근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새터민 등 저소득 소외계층 무료 구강진료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강보건 사생대회·백일장 연다
광주시치과의사회 5일 비엔날레서

광주시치과의사회(회장 배웅)는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탁)과 함께 오는 5일 오전 10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옆 천인천탑에서 그림, 포스터, 글짓기 등 사생대회 및 백일장을 개최한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시민들에게 문화나눔의 자리로 도예체험·풍선만들기·페이스 페인팅 등 행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신창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취임

신창선(61) 전남대 법학교육 교수가 지난 1일 전남대 제2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에 취임했다. 신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신창선

전남대 대학원생 국제 학술지 표지 논문에

박선하 씨 美 '약물대사 소실'

전남대 대학원생의 논문이 국제저명학술지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화제다. 전남대 박선하(생물과학부 생명과학과 박사과정 1년, 지도교수 윤철호)씨가 주 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세계 상위 10% (한국연구재단 선정)에 속하는 미국 과학저널 '약물대사 및 소실(Drug Metabolism and Disposition)' 5월호 표지에 게재됐다.



박선하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이석구·박애영씨 장남 원우군 한기민(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김순와씨 장녀 은미양=16일(일) 오후 1시 조선호텔 1층(그랜드볼룸), 피로연 8일(토) 오후 5시 메리어트 웨딩홀.

중친회

광학

▲광산이씨 상서공파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4일(화) 오후 6시30분 화랑궁회관. 062-224-1800.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았거나,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일본평화학회 회원 100여명 5·18묘지 참배

“5·18, 아시아 민주주의 모델로 정착시킬 것”

광주의 오월 공유 한·일 관계 새로운 연대 계기로
‘흰 빛 검은 물’ 흥성담 전시회 참석 과거사 반성도

“국가의 폭력에 항거해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1980년 5·18 당시 광주시민들의 의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5·18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본평화학회 실행위원장인 우치미 아이코(内海愛子) 와세다대학 객원교수 등 회원 100여 명이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전남대 5·18연구소와 함께 ‘저항과 평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2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이들 회원들은 1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을 방문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주제로 한 흥성담씨의 전시회 ‘흰 빛 검은 물’을 둘러보기도 했다. 전시회에서 회원들은 흥성담씨로부터 직접 작품 설명을 듣고 환담도 나눴다.



지난 1일 일본평화학회 회원 100여명이 5·18 30주년을 맞아 광주시 서구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흥성담씨의 전시회 ‘흰 빛 검은 물’을 찾아 흥씨로부터 작품설명 듣고 있다.

한편 이번 흥성담씨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 김지하 시인은 ‘산알은 희그늘의 아기’라는 축하 글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주관한 전남대 5·18연구소 관계자는 “30주년을 기념한 일본평화학회의 이번 방

문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 민주화운동을 평가하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대·교류사업을 통해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용택 시인, 이창동 영화 ‘시’에 깜짝 출연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 날 쳐다보고 있어서 얼어버렸죠. 이창동 감독과 모르는 사이 같은데 활달하게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땀을 뻘뻘.”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주인공인 60대의 미자(윤정희)가 듣는 문학 강좌에는 낮익은 얼굴이 등장한다. ‘심장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이다. 그는 영화 속에서 ‘김용택’이라는 시인으로 나와 시에 대해 강연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김용택

도올 김용옥 교수 ‘도마복음한글역주’ 완간
도올 김용옥(원광대 석좌교수)씨가 도마복음을 한글로 해설한 ‘도올의 도마복음한글역주’ 3권을 완간했다.



도올 김용옥

“처음엔 시나리오 보고 조언해달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어보니 김용택 시인이 나오고 내가 평소 강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창동 감독을 만났는데, ‘은막에 한번 데뷔해보는 건 어떠세요?’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망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굉장히 생각 깊고 배려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많이 했을 거다 싶었어요. 시나리오가 원체 완벽해서 욕심이 생겼죠.” /연합뉴스

장동건·고소영 “예쁘고 행복하게 살게요”



어제 서울서 비공개 결혼식

“예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장동건·고소영 커플은 2일 오후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앞서 포토타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동건은 “그간 저희 커플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이 감사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며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의 관심만큼 예쁘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다짐했다.

개그맨 유재석·아나운서 나경은 아들 출산

타블로는 어제 딸 낳아

개그맨 유재석과 가수 타블로가 하루 차이로 아들과 딸을 출산했다. 유재석의 소속사인 디조콜리이엔티에프는 “유재석의 아내 나경은 MBC 아나운서가 지난 1일 오전 11시18분경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3.4kg의 아들을 출산했다”며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다고” 전했다. 유재석과 나경은 아나운서는 지난 2008년 7월 결혼했다. <사진> 가수 타블로와 배우 강혜정 부부는 첫딸을 얻었다. 타블로는 2일 트위터를 통해 “신비로운 기적



유재석 나경은

의 날, 오늘 오전 11시5분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다”며 “혜정씨와 우리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a book or event titled '故 정문희 (여/81세)'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227-4003.

Advertisement for '프리드' (Freedom) by '국가대표 브랜드' (National Representative Brand) with a phone number 1688-3740.